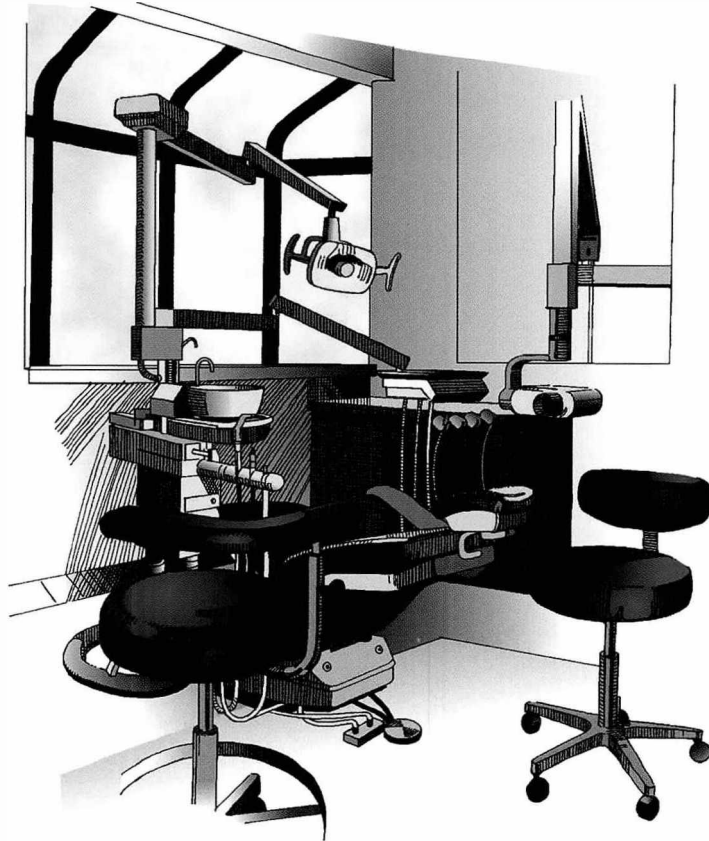


# HIV 감염과 구강 보건

글 정일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부교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10여 년간의 많은 연구와 이에 기초한 진료로 HIV에 감염된 환자들의 번역 상태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수명 또한 연장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나 AIDS 환자들을 더 이상 절망적인 병에 감염된 사람들로 보지 않고 단지 만성적으로 번역이 악화된 상태를 가진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또한 기존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감염인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리게 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치아를 포함한 구강 건강 상태를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과거에는 감염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치과를 찾아온 감염인들에게 단지 통증 완화와 같은 응급치치나 일회성의 진료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노나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진 환시들을 치료할 때처럼 단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보다 철저히 지키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HIV 감염에 있어서 치과 서비스는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실정인 것 같다. 남부 유럽과 미국에서의 조사를 보면 40%의 HIV 감염인이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반 병원에 내원하는 632명의 HIV 감염 환자 중 65%가 지난 3년간 치과치료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감염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감염인을 위한 보건 정책의 큰 틀 안에 치과 진료가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예전에 비해 치과 의사의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긴 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의 치과 의사가 HIV 감염 환자에 대한 치료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교차 감염의 위험성과 함께 의료진 및 환자 손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HIV 감염인에 대해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치과 의사들에 대한 재교육과 일반 국민들의 감염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HIV 감염인에 대한 치과 치료가 안전한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HIV 환자의 치과 치료에 있어서 합병증 발생률은 정상 환자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일반 환자에서처럼 필요한 경우 시술 전 적절한 조치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치과 진료 술식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받치(이를 뽑는 것)의 경우 감염인의 경우 4%에서 23%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났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감염되지 않은 일반 환자의 13%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감염인들이 치과를 찾는 또 다른 주된 이유인 근관치료(신경 치료)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치료 성공률 또한 비감염인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CD4 수치가 낮은 환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치과 진료와 정기적인 검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염인들의 구강 건강을 명백히 잘 유지시켰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삶의 질 또한 개선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대부분의 치과 진료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치과 진료는 대부분 출혈을 동반한 외과 시술이며 구강 내에는 많은 세균들이 상주하며 그런 출혈 부위를 통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비감염인 보다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나 기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담당 주치의에게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치과 진료는 행해져야 한다.